

【연구논문】

『고함과 분노』에 나타난 기능 장애 가정의 원인으로서의 모성 애정 결핍

이 정 호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I. 시작하는 말

위텐버그(Wittenberg)는 『고함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가 포크너(Faulkner)의 어느 다른 소설보다도 프로이트적인 접근법을 원용하기에 아마도 가장 적합한 소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¹⁾ 물론 위텐버그는 프로이트적인 접근법을 특별히 지적한 것이기보다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소설이 프로이트적인 접근법으로 대표되는 정신분석적 접근법을 원용하기에 좋은 소설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 이론을 정교하게 발전시킴으로써 정신분석 이론을 문화와 문학 읽기에도 적합하도록 한 라캉(Lacan)의 이론을 이 소설 읽기에 적용할 경우, 훨씬 더 흥미로운 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포크너 자신은 적어도 두 번 공식적으로 자신은 프로이트의 저작을 직접 읽은 적이 없어 그의 이론에 대해 깊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 첫 번째 공식적인 언급은 1955년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 때 “내가 뉴 올리언즈(New Orleans)에 살고 있을 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트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저작을 결코 읽

1) Judith Bryant Wittenberg, “Teaching *The Sound and the Fury* with Freud,” Stephen Hahn, and Arthur F. Kinney, eds., *Approaches to Teaching Faulkner’s The Sound and the Fury* (New York: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996), p. 73.

은 적이 없다”²⁾고 말했다. 또 다른 계제에 그는 정신과 의사들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이 때 “내가 아는 심리학이란 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을 창조한 것과 포커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프로이트는 잘 알지 못합니다”³⁾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같은 포크너 자신의 프로이트에 대한 언급은 그가 자신의 소설과 프로이트의 이론 사이에 많은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

그러나 우리는 포크너가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해 자신의 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시침 때기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포크너가 살던 1920년대에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접할 기회는 아주 다양했기 때문이다.⁵⁾ 자이틀린(Zeitlin)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함과 분노』와 『8월의 빛』(*Light in August*)을 쓴 작가[인 포크너]보다 프로이트에 대해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진 미국작가는 [1920년대에는] 없었다. 포크너는 프로이트의 저작을 영어 번역본을 통해 읽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는 콘래드 에이컨(Conrad Aiken), 셔우드 앤더슨(Sherwood Anderson), 필스톤(Phillip Stone) 등과의 교류를 통해 프로이트의 이론을 접했을 것이며, 또한 1920년대의 지적 분위기 속에 날아다니던 유명한 “사상의 꽃가루”를 접했을 것임에 틀림없다.⁶⁾

그렇다면 포크너 자신이 이처럼 그의 소설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

- 2) James B. Meriwether and Michael Millgate, eds., *Lion in the Garden: Interviews with William Faulkner, 1926-1962* (New York: Random, 1968; Lincoln: U of Nebraska P, 1978), p. 251.
- 3) Frederick L. Gwynn and Joseph L. Blotner, eds., *Faulkner in the University: Class Conferences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1957-1958* (New York: Random, 1959; New York: Vintage, 1975), p. 268.
- 4) John T. Irwin, *Doubling and Incest/Repetition and Revenge: A Speculative Reading of Faulkner*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5), p. 5.
- 5) Michael Zeitlin, “Faulkner and Psychoanalysis: The *Elmer* Case,” Donald M. Kartiganer, and Ann J. Abadie, eds., *Faulkner and Psychology: Faulkner and Yoknapatawpha, 1991* (Jackson, Mississippi: UP of Mississippi, 1994), p. 219.
- 6) *Ibid.*, p. 219.

론 사이의 연관성을 직설적으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을 읽으면 마치 프로이트의 이론이 그의 소설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프로이트의 천재성과 포크너의 천재성이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상보(相補)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포크너의 소설 쓰기가 이성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무의식에 감추어진 그의 욕망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함과 분노』의 제목이 포크너의 이성적인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그의] 무의식의 표출에서 나온 것이다”⁷⁾라는 코인드로(Coindreau)의 지적에서 잘 드러난다. 포크너는 또한 이 소설을 쓴 과정에 대해 “이 이야기를 쓰기 위해 모두 다섯 번을 시도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 소설을 완성한 후에야 나를 고뇌 속으로 몰아넣던 악몽이 사라졌다”⁸⁾고 술회했다. 그는 이 같은 창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심리적인 “평안”⁹⁾과 “희열”¹⁰⁾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포크너 자신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비록 정신분석에 대해 체계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깊이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정신분석으로 치유한 셈이다. 이것이 바로 포크너의 위대한 천재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소설을 씀으로써 정신과 의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치료한 셈인데, 이는 곧 글쓰기 치유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깊이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에는 왜 이처럼 많은 정신분석적 요소가 포함돼 있는가? 다음과 같은 포크너 자신의 말은 이에 대한 아주 적절한 대답이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작가 자신은 그가 프로이트를 [이론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많

7) Maurice Edgar Coindreau, “Preface to *The Sound and the Fury*,” George M. Reeves, translated, *Mississippi Quarterly* 19 (Summer 1966), p. 109.

8) Meriwether and Millgate, *Lion in the Garden*, p. 244.

9) William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Norton Critical Edition, 2nd ed., David Minter, ed., (New York: Norton, 1994), p. 233. 이후 이 책은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Norton]로 표기함.

10) Judith Bryant Wittenberg, *Faulkner: The Transfiguration of Biography* (Lincoln: U of Nebraska P, 1979), p. 74.

은 것을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쓰인 것들을 프로이트를 아는 누군가가 찾아내어 이것들이 중요한 개념[상징]이라고 설명해 준다.”¹¹⁾ 이것이 포크너의 천재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고함과 분노』를 분석하면서 하는 작업은 바로 이러한 설명이 될 것이다. 천재는 창조하지만, 비평가는 단지 그가 창조한 것들을 분석하는 데에 만족할 뿐이다.

II. 포크너는 왜 『고함과 분노』를 썼는가?

소설가가 자신의 특정한 소설이 어떻게 해서 쓰이게 됐는가를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포크너가 자신의 소설의 연원에 대해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크너는 예외적으로 이 소설을 시작한 계층(階梯)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대단히 절박한 이유에 있음을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는 자신이 이 소설을 쓰게 된 것은 “아름답고 비극적인 조그만 소녀”¹²⁾를 창조하고자 하는 욕망에 연원한다고 설명한다. 그가 이 소녀를 창조한 것은 그에게는 없었던 여동생과 어릴 때 죽은 딸이라는 두 사람의 부재(不在)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캐디(Caddy)의 이름의 어원은 라틴어의 *cadere*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타락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이름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이라는 의미 외에도 충만의 상태에서 상실의 상태로 타락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라캉이 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말하는 언어가 야기하는 상실로서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다.¹³⁾ 물론 여기서 결핍이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

11) Frederick L. Gwynn and Joseph L. Blotner, eds., *Faulkner in the Universty* (Charlottesville, VA: UP of VA, 1959), p. 147.

12) Philip Cohen and Doreen Fowler, eds., “Faulkner’s Introduction to *The Sound and the Fury*,” *American Literature* 62 (June 1990), p. 277.

13) Doreen Fowler, *Faulkner: The Return of the Repressed* (Charlottesville, VA: UP of

에게 보여준 모성의 결핍을 의미한다.

포크너는 “아름답고 비극적인 조그만 소녀”라는 말로 그가 캐디에 대해 느끼는 애정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이 같은 함축적인 말에는 캐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캐디에 대한 그의 말은 이 소설에 나오는 캐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다.

나 자신도 그[소설] 속에 오빠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등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캐디의] 오빠 하나만으로는 내가 그녀에게 느끼는 모든 것을 담아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남동기간 셋을 썼다. 켄틴(Quentin)은 연인처럼 그녀를 사랑했고, 제이슨(Jason)은 아버지가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투심과 분한 마음으로 그녀를 증오했으며, 벤지(Benji)는 어린애처럼 아무 분별력이 없이 그녀를 사랑했다.¹⁴⁾

포크너가 어떻게 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됐는가는 그가 버지니아 대학교에 초빙교수로 가 있을 때 대학원 미국 소설 강의에서 한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가 한 답변에서 잘 드러나 있다. 질문자는 포크너에게 『고함과 분노』의 처음 세 부분은 콧손 가족의 네 아이들 중 세 아이가 각각 한 부분씩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캐디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캐디가 전면으로 나서서 서술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라고 질문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포크너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그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이 소설 전체에 대한 설명이 그 질문 속에 있군요. 나는 이 소설의 처음을 진흙이 묻어 더러워진 속옷은 입은 작은 소녀[캐디]의 묘사로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아이는 나무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거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나무 아래에는 나무에 올라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남

VA, 1997), p. 32.

14) Cohen and Fowler, “Faulkner’s Introduction to *The Sound and the Fury*,” p. 277.

자 동기간들이 그녀가 보는 것을 얘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나는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남동생 하나[벤지]가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1부지요. 그래서 나는 그녀의 또 다른 남동기간인 오빠[퀸틴]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했지요. 그런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2부지요. 그래서 나는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남동기간인 남동생[제이슨]으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했지요. 왜냐 하면 내게는 캐디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그녀로 하여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은 그녀의 존재를 축소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를 다른 인물의 눈을 통해 보는 것이 좀 더 열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직접 나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접 서술했지요. 그게 4부지요. 그래도 아직 작성이 풀리지 않았어요.¹⁵⁾

위에 인용한 포크너의 답변에서 우리는 그가 이 소설에서 말하려는 것이 거의 강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무의식에 억압했던 그 무엇인가를 글쓰기를 통해 토로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가 이 소설에서 쓴 내용은 그가 자유연상에 의해 자신의 무의식 속에 억압돼 있던 것을 발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 연상은 그가 이 소설에서 사용하는 반복 기법을 통해 드러난다. 포크너는 이 소설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다른 화자를 통해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이 같은 반복은 그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캐디에 대한 사랑이 소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반복은 이 소설의 내용이 그 자신의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이 소설의 많은 부분은 그의 가족사(家族史)와 개인사(個人史)와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설을 통해 포크너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사적인 사실에 상상력으로 보태서 이를 소설로 창조한 셈이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성장과정에 있는 아이들이어서 사춘기를 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성장이 끝난 어른과는 달리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항상 변한다.

15) Gwynn and Blotner, *Faulkner in the University*, p. 1.

따라서 우리는 이 소설을 읽는 동안 그들이 겪게 되는 감정적인 기복을 함께 경험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III. 포크너의 전기적 사실¹⁶⁾

『고함과 분노』는 포크너 자신의 가족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의 전기를 살펴보는 것은 이 소설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 포크너는 1897년 9월 25일에 미시시피 주의 뉴 올버니(New Albany)에서 머리 커스버트 포크너(Murry Cuthbert Falkner)를 아버지로 그리고 모드 버틀러 포크너(Maud Butler Falkner)를 어머니로 하여 이들의 첫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태어날 때 이름은 윌리엄 커스버트 포크너(William Cuthbert Falkner)였는데, 성(姓)은 Falkner로 표기됐다. 그러나 후에 그가 캐나다에 가서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1918년 7월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영국 공군에 입대하려고 재외 영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alkner라는 성을 Faulkner로 바꿨는데, 그 후 이것이 그의 성으로 굳어졌다.¹⁷⁾

포크너의 조상은 스코틀랜드 게이거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게이다. 그의 조상들은 거의 신화적인 존재들이었는데, 특히 “늑은 대령”으로 알려진 그의 증조할아버지인 윌리엄 클라크 포크너(William Clark Falkner, 1825~1889)가 그러하다. 그는 성미가 급하고 창의적인 인물이었다. 포크너가 창조한 미시시피 주의 요크너퍼토퍼 카운티(Yoknapatawpha County)의 존 사토리스 대령(Colonel John Sartoris)은 그의 증조부를 원형으로 한 것이다. 윌리엄 클라크 포크너는 남북 전쟁에 남부군 대령으로 참전했다. “늑은 대령”은 남북 전쟁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와 변호사로 개

16) A. Nicholas Fargnoli and Michael Golay, *William Faulkner A to Z: The Essential Reference to His Life and Work* (New York: Facts On File, 2002), pp. 67-76.

17) Fargnoli and Golay, *William Faulkner A to Z*, p. 70.

업하여, 명성을 얻었으며, 은행가로서 그리고 철도 사업가로서 성공했다. 또한 그는 1881년에 『멤피스의 흰 장미』(*The White Rose of Memphis*)라는 소설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30년간 계속 출간되어 16만 권이 팔렸다고 한다.¹⁸⁾

“젊은 대령”이라고 불린 “늙은 대령”의 아들 존 웨즐리 톰슨 포크너(John Wesley Thompson Falkner, 1848-1922) 역시 그의 아버지가 개척한 은행업과 철도 사업을 확장시켰으며, 정치에도 입문했다. 그는 1869년에 결혼했는데, 그의 첫 아들이 포크너의 아버지이다. 그러나 포크너의 할아버지인 “젊은 대령”은 음주벽이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멤피스에 있는 킬리 병원(The Keeley Institute of Memphis)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음주벽은 그의 아들인 포크너의 아버지와 포크너에게도 기질이 유전됐다.

포크너의 어머니의 가계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집안인 버틀러 가문(the Butlers)은 미시시피 주의 라파엣 카운티(Lafayette County)의 초기 정착자이다. 포크너의 어머니 친척 중에는 남북 전쟁 당시 남부군의 장군이었던 펠릭스 졸리코퍼(Felix Zollicoffer)라는 인물도 있다. 그의 외할아버지인 찰스 버틀러(Charles Butler)는 옥스퍼드 시의 경찰서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1887년 부인과 두 자녀를 남겨두고公款 3천 달러를 가지고 젊고 예쁜 혼혈 흑인 여자와 도주했다. 포크너는 이런 이유로 해서 외할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외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지냈다. 포크너에게는 세 명의 남동생이 있었다. 잭(Jack)이라고 불린 머리 찰스(Murry Charles)와 존시(Johncy)라고 불린 존 웨즐리 톰슨 3세(John Wesley Thompson III), 그리고 딘(Dean)이 그들이다.

아버지 대에 와서 포크너의 집안은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그의 가문의 소유였던 철도 회사를 1902년 5월 7만 5천 달러에

18) Fargnoli and Golay, *William Faulkner A to Z*, p. 67.

매각했다. 철도 회사의 매각은 포크너의 아버지로부터 할 일을 없게 만들었다. 포크너의 할아버지(“젊은 대령”)가 그의 아버지를 재정적으로 도와 주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댔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 같은 사업의 실패는 이미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 포크너의 부모의 애정을 더욱 더 식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포크너의 어머니는 냉랭하고 고집이 센 성격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우유부단하고 알코올을 의존적이었다. 어머니는 책과 그림을 좋아한 반면, 아버지는 총, 개, 그리고 말을 좋아했다. 포크너는 어머니의 내주장이 강한 집안에서 정서적인 불안정을 경험하며 자랐다. 그의 집에는 캐롤라인(캘리) 바(Caroline [Callie] Barr, 184?-1940)라는 흑인 하인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는데, 아이들은 그녀를 유모 캘리라고 불렀다. 이 소설에 나오는 딜지(Dilsey)는 그녀를 모델로 한 것이다.

IV. 기능 장애 가정의 원인으로서의 모성 애정 결핍

이 소설은 기능 장애 상태에 있는 콤포슨 가(the Compson family)의 중심에는 바로 기능 장애의 어머니가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렇게 볼 때 이 소설은 『압살롬 압살롬』(*Absalom, Absalom!*)과 대조되는 소설이다. 『압살롬 압살롬』에서는 토마스 셋펜(Thomas Sutpen)으로 대표되는 가부장적인 주인공의 왕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기획이 남성 중심적이고 부계 계승적인 야심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획은 백인 중심적이고 재산 중심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셋펜의 원대한 꿈은 워시 조운스(Wash Jones)라는 프로레타리아 백인에 의해 그가 살해되는 비극으로 인해 종말을 맞는다. 물론 셋펜의 아들인 헨리(Henry)가 흑인 혼혈이며 이복형인 찰스(Charles)와 여동생인 주디스(Judith)와의 근친 상간적인 결혼에 반대하여 찰스를 죽이는 사건 또한 발생한다. 그러나 헨리가 찰스를 죽인 것은 그가 근친상간에 반대하는 것이기 보다는 찰스가 흑인 혼혈이

라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섯펜의 계획의 근간이 되는 남성 백인 중심의 가부장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억압과 배제를 작동 원리로 삼음으로써, 주변화된 인물인 백인 조운스에 의해 힘없이 무너지고 만다. 따라서 강함의 보루처럼 여겨지는 가부장제는 그것이 힘에 의한 지배인 한에 있어서는 배제되고 주변화된 요소들을 포용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아킬레스 건(腱)으로 작용하여 언제나 가부장제를 기초부터 붕괴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이 소설은 보여준다.

『압살롬 압살롬』이 이처럼 가부장제의 취약성을 섯펜이라는 가부장적인 남성 인물을 통해 드러낸 작품이라면, 『고함과 분노』는 아버지의 이름을 작동 원리로 하는 가부장제에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와 어머니가 어떠한 정신역학적(精神力學的) 관계를 가지는가를 드러내는 소설이다. 이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정신역학의 중심에는 콧손 부인이 있으며, 포크너는 그녀를 통해 가부장제가 어떻게 유연하고 원활(圓滑)하게 작동하지 않는가를 보여준다. 가부장제는 남성 우선적인 사회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 제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러한 제도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단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최일선에서 있는 인물이 곧 어머니이다.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은 이 같은 어머니로서의 콧손 부인이 어머니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콧손가가 기능 장애를 겪게 되는 상황을 보여 준다. 이러한 가정의 기능 장애는 어머니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그녀의 자녀들의 삶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소설은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가 이를 최일선에서 실천하는 어머니에 의해 왜곡되게 받아들여질 경우, 이것이 가정을 어떻게 기능 장애의 가정으로 만들며, 이러한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들인 자식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 나오는 콧손가의 아이들은 모두 유아기에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다.¹⁹⁾ 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멈춘 것은 근본적으로 모성 애정 결핍에

그 원인이 있다. 이 소설의 처음 부분의 화자로 나오는 벤지를 보자.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일찍 성장을 멈춘 예로, 지능 면에서나 언어 면에서 상징계(the Symbolic)에 진입하기 전인 오이디푸스 전 단계(pre-Oedipal stage)에 머물러 있다. 그가 이처럼 상징계에도 진입하기도 전에 성장이 멈춘 것은 물론 모성 애정 결핍만이 그 원인은 아니지만, 콥슨 부인이 그를 대하는 것을 보면 그가 심각한 모성 애정 결핍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벤지의 처음 이름은 모리(Maury)였다. 모리는 콥슨 부인의 남동생의 이름이었는데, 그녀는 콥슨 가에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에 완전 동화되기보다는 언제까지나 친정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콥슨 부인이 그녀의 막내가 정신지체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남동생의 이름을 따서 지은 모리라는 이름을 벤자민으로 바꾸게 된다. 이는 가부장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작동 원리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 하면 모리라는 이름을 벤자민으로 바꾼 것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벤자민(벤지)으로부터 모성애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벤지가 이 소설의 처음 부분에서는 이미 33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성을 갈구하는 어린애의 상태에 있으며 상징계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 정신 지체 장애자인 벤지는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어머니의 애정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개는 신이 내게 내린 천 벌이야”²⁰⁾라는 콥슨 부인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렇다면 콥슨 부인은 왜 어머니로서 자녀의 양육을 등한시하며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그녀가 심리적으로 처녀기(處女期)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²¹⁾ 여성의 성장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처녀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성기(母性期)이다. 처녀

19) Wittenberg, “Teaching *The Sound and the Fury* with Freud,” p. 76.

20) William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the Corrected Text* (New York: Vintage, 1987), p. 5. 이후 이 책은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Vintage]로 표기함. 정인섭[번역], 『음향과 분노』 (서울: 북피아, 2006), 23쪽.

21) Weinstein, *Faulkner's Subject: A Cosmos No One Owns* (Cambridge UP, 1992), p. 35.

기는 결혼하기 이전의 시기로 이 시기에 여성은 자신의 교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교환 가치를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은 처녀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결혼하기 전에 처녀성을 잃을 경우, 여성은 결혼에서 높은 교환 가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혼 전의 여성이 처녀성의 가치를 높이 사는 것은 가부장제의 가치이기도 한데, 콧손 부인이 이처럼 처녀성의 가치에 집착하는 것은 그녀가 바로 가부장제의 가치관을 체득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이 결혼한 후에는 결혼 전에 이처럼 중요하던 처녀성보다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자질이 더 중요하게 된다. 모성기에는 자녀의 양육자로서의 자질이 더 중요한데, 이러한 자질의 핵심인 모성애에는 처녀의 자질과는 달리 성생활(性生活)과 이에 따르는 출산과 양육의 지저분함이 포함된다. 콧손 부인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그녀의 친정아버지가 가진 여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잘 드러난다.

왜냐 하면 여자들이란 그렇게 미묘하고 신비스럽기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균형이 잡힌 두 달 사이에서 미묘한 평형을 유지하는 주기적인 오물(汚物). 달은 중추의 만월은, 여자의 엉덩이나 가랑이 같이 가득히 부풀어 오르고 노랗다고 아버지가 말했다. 외부는, 그들의 외부는, 언제나 노란색. 말하자면 걸어 다니므로 노랗게 된 발바닥. 그런데 누군가가 저 신비스럽고 거만한 사람들이 숨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내부에선 접촉을 기다리고 있는 외면이 애교를 형성한다. 물에 빠졌던 것이 혼합된 겨우살이덩굴 냄새를 풍기며 회뿌연 고무처럼 연약하게 떠오르는 것 같은 부패된 액체.²²⁾

콧손 부인이 여성의 성(性)과 출산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녀의 친정아버지가 말한 바로 이 같은 가부장제의 기본적인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콧손 부인이 처녀기에 머물러 있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경시하는 것은 여성이 월경 등의 생리 현상 때문에 더럽다는 바로 이 같은 가부장

22)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Viking], p. 147. 정인섭, 207-8쪽.

적인 생각을 학습하여 이를 자신의 행동 강령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처녀는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며, 여성의 성과 출산은 냄새가 나고 추한 것이라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실행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이데올로기의 괴물”²³⁾이 된 셈이다. 이 같은 그녀의 처녀기 고착이 바로 그녀 자신을 과별로 이끌 뿐 아니라 그녀의 자녀 모두를 과별로 이끈다.

어머니와 딸은 가족 중에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 어머니는 딸에게 있어 역할 모델일 뿐만 아니라 딸은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딸과 어머니는 이 같은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어머니와 딸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콧수 부인이 딸인 캐디에게 보이는 태도에 기인한다. 콧수 부인은 병적일 정도로 캐디에게 순결을 강요한다. 그러나 여성이 결혼 전에는 순결해야 할 필요는 있으나, 성장하여 결혼한 후에는 순결보다는 아이들의 양육자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된다. 또한 여성은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순결을 정도 이상으로 강요할 경우 이는 여성을 유아의 상태로 묶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콧수 부인이 이처럼 캐디에게 순결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캐디는 성적으로 문란해진 것일 수도 있다. 캐디에 대한 이 같은 순결 강요는 캐디가 남자 아이와 입맞춤을 했을 때 콧수 부인이 캐디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그녀는 캐디가 남자 아이와 혼전에 입맞춤을 한 것을 순결을 잃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캐디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검은 상복(喪服)을 입는 과잉 반응을 보인다. 물론 20세기 초 미국 남부인의 의식 구조에서 혼전 여성이 남자와 입맞춤을 하는 것은 성행위를 하는 것 만큼이나 불순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캐디의 이 같은 행동을 보고 딸을 위로하거나 적절히 타이르는 대신 일방적으로 검은 상복을 입음으로써 그녀를

23) Weinstein, *Faulkner's Subject*, p. 3.

소외시키는 것은 어머니가 딸에 대해 충분한 애정이 없고 포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콧손 부인의 행동은 캐디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 결핍이 돼 있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콧손 부인이 이처럼 벤지와 캐디에 대해 애정에 인색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제이슨을 편애한다.²⁴⁾ 그녀가 제이슨을 편애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자식들 중에서 친정 식구를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그녀의 제이슨에 대한 편애는 오히려 제이슨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는 어머니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그녀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행사하는 데에 길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미숙함과 무책임감은 그를 금전 제일주의자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 이 같은 그의 성격은 그로 하여금 누구에게도 애정을 주지 못하는 인물이 되게 한다. 따라서 그는 벤지를 이해하기보다는 그가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미워한다. 그는 또한 캐디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해서 그녀를 싫어한다. 이처럼 그는 콧손 부인이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준을 오직 하나의 잣대로 삼아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V. 벤지와 켄턴의 대리모로서의 캐디와 켄턴의 캐디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

벤지는 정신 장애자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거세된 인물이다. 따라서 그는 상징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상상계에 머무는 존재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는 특별한 배려와 애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콧손 부인이 그에게 애정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그에게 애정

24) Edmond L. Volpe, *A Reader's Guide to William Faulkner* (San Jose, CA: Authors Choice Press, 1964, 2001), p. 109.

을 베풀어 줘야 한다. 물론 물질적인 욕구는 러스터(Luster)가 채워주는 해도 심리적인 요구는 어머니 이외의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한다. 이러한 심리적인 요구를 채워주는 사람이 곧 캐디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벤지는 캐디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가 이미 육체적으로 성장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캐디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벤지는 언어로 대표되는 상징계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수단은 후각(嗅覺)이다. 그는 냄새를 통해 그의 일상적인 소통 행위를 수행한다. 캐디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할 적에 벤지는 캐디에게서 나무 냄새가 난다고 느꼈다. 이는 캐디가 아직도 순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녀가 성장하여 향수를 뿌리게 되자 그는 이를 역겹게 생각한다. 벤지는 이처럼 캐디의 변화를 냄새로 맡는 셈이다.

캐디는 벤지 뿐만 아니라 켄틴에게도 대리모의 역할을 한다. 콤슨 부인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 때의 순결관에만 사로잡힌 여인이다. 따라서 그녀는 부인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어머니이기를 거부한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그녀의 말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자식들이 나한테 태어났지. 벤지민만으로도 충분히 벌을 받고 있는 건데. 제 어미인 나를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는 그 계집애(캐디) 때문에 난 고통도 받아 왔고, 꿈도 꾸었고, 계획도 세웠고, 희생도 해왔던 거예요. [중략]. 제이슨은 예외예요. 그 앤 내가 처음으로 팔에 안아 본 이후 한 번도 내게 슬픔을 준 일이 없거든요. 그 때 난 그 애는 내 기쁨과 구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벤지민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벤지민은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나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남자와 결혼을 한 것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나는 불평하지 않아요. [중략]. 나는 시집오기 전에도 불행했어요. 바스콤 가(家)(a Bascomb) 같은 보잘 것 없는 집안에 태어났으니 말예요. 그러나 나는 여자는 숙녀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될 수 없다고 배웠거든요.²⁵⁾

25)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Viking], pp 117-8. 정인섭, 168-169쪽.

이처럼 콧수 부인이 거부한 어머니의 역할을 캐디가 대신해 그녀의 남동기간에게 애정을 준다.²⁶⁾ 벤지는 정신 장애자이기 때문에 모성 애정 결핍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있으나, 의식화하지는 못한다. 이에 비하여, 켄틴은 모성 애정 결핍을 느끼고 있다. 이 같은 켄틴의 모성 애정 결핍을 보충하는 인물이 캐디이다. 따라서 캐디는 켄틴의 누이동생이지만, 그녀는 또한 대리모인 셈이다. 벤지와 켄틴이 캐디에게 신경증적인 강박 증상을 보이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치환(置換)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⁷⁾ 캐디는 이처럼 콧수 부인이 벤지와 켄틴에게 주지 못하는 사랑을 준다.²⁸⁾ 이 같은 켄틴에게 캐디의 결혼은 아주 커다란 정신적인 외상이 아닐 수 없다.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이던 켄틴은 캐디의 결혼 통지를 받고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 이러한 충격 때문에 그는 강의를 빠지게 된다. 켄틴의 룸메이트인 슈리브(Shreve)는 강의에 가지 않은 켄틴에게 “너 왜 결석했니? 결혼식이었니? 아니면 상가집에서 밤샘을 했니?”²⁹⁾라고 묻는다. 켄틴의 대리모인 캐디의 결혼은 켄틴에게는 축하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례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켄틴이 캐디의 결혼에 대해 이처럼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켄틴이 캐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근친 상간적인 애정에 근거한 것이다. 유아에게 있어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의 중심에 있다. 어머니는 아직 오이디푸스 전 단계에 머무는 아이에게는 융합(融合)의 근원이다. 아직 주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이 시기에 어머니는 주체와 객체, 너와 나, 어머니와 유아라는 구별을 없애주는 존재이다.³⁰⁾ 따라서 이 시기는 인간에게는 구별에 근거한 상징계 이전의 융화와 조화의 시기인 셈이다. 크리스테바(Kristeva)는 이러한 시기를 기호계(記號界

26) Weinstein, *Faulkner's Subject*, p. 30.

27) Wittenberg, “Teaching *The Sound and the Fury* with Freud,” p. 77.

28) Volpe, *A Reader's Guide to William Faulkner*, p. 110.

29)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Viking], p. 93. 정인섭, 137쪽.

30) Doreen Fowler, “‘Little Sister Death’: *The Sound and the Fury* and the Denied Unconscious,” Donald M. Kartiganer and Ann J. Abadie, eds., *Faulkner and Psychology: Faulkner and Yoknapatawpha, 1991* (Jackson, Mississippi: UP of Mississippi), p. 17.

semiotic)라고 부른다. 인간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융화와 조화의 세계는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 가능하다. 이 시기의 어머니는 유아에게는 “언어 이전의 충만”³¹⁾이기 때문이다. 유아는 그 자신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유아의 모든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 그러나 켄틴은 어머니의 이 같은 사랑을 결핍한 존재이다. 켄틴의 이러한 어머니의 애정 결핍은 “지하 감옥이 바로 어머니였어”³²⁾라는 그의 말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그에게 있어 어머니는 평화와 안정의 상징이기보다는 중세 시대에 고문과 형벌의 장소였던 지하 감옥으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유아시기에 어머니는 그에게 이 같은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같은 사랑에 대해 결핍을 느끼고 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사랑을 베풀던 딜지(Dilsey)가 있지만, 그녀는 단지 흑인 유모이기 때문에 켄틴은 그녀와 자신을 동일시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켄틴은 이러한 모성 애정 결핍을 어디서 충족할 수 있는가? 그에게 어머니는 이미 캐디로 치환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그는 이 같은 조화와 융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원천을 캐디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캐디에 대한 켄틴의 근친 상간적 사랑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어머니에 대한 근친 상간적 사랑과 궤(軌)를 같이 한다. 켄틴의 캐디에 대한 사랑은 “타자를 자신 속에 통합함으로써 이전에 그가 느끼던 존재의 충만함을 회복하려는 욕망”³³⁾인 셈이다.

VI. 켄틴 물에 빠져 죽다

켄틴은 어머니와의 언어 이전의 사랑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자신의 어

31) Weinstein, *Faulkner's Subject*, p. 34.

32)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Viking], p. 198.

33) Fowler, “‘Little Sister Death,’” p. 11.

머니가 그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런 사랑을 여동생인 캐디로부터 갈구한다. 그가 캐디와의 근친 상간적 성관계를 갈구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성관계란 동시에 죽음과 동의어이기도 하다. 성관계가 죽음과 등가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오래 전 형이상학과 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인류 역사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내려 오는 생각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는 켄틴과 캐디의 성적 결합이 죽음과 동의어라는 생각은 다음과 같이 은유적으로 표현돼 있다: “여동생을 가져 본 적이 없는 성 프란시스코는 죽음이 곧 어린 여동생이라고 말했다.”³⁴⁾ 성관계가 곧 죽음이라는 생각은 캐디도 똑같이 갖고 있다. 캐디가 결혼하기 전 켄틴은 그녀와 만난다. 이들은 서로를 만지면서 자신들의 심경을 말한다. 주위에서는 겨우살이덩굴 냄새가 난다. 나무 냄새와는 달리, 겨우살이덩굴 냄새는 이 소설에서는 성적인 분위기가 고조돼 있음을 상징한다. 켄틴은 캐디가 키스한 그 사람 [돌튼 에임스(Daltom Ames)]을 미워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런 질문에 캐디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래요. 난 그 사람 미워해요. 그 사람이라면 난 차라리 죽는 거예요. 난 그 사람 때문에 벌써 죽은 걸. 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자꾸만 죽는 거예요.³⁵⁾

여기서 캐디가 말하는 요지는 성관계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켄틴이 캐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근친 상간적 관계 역시 켄틴에게는 같은 등식이 성립된다. 이것은 켄틴이 치환된 어머니로서의 캐디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켄틴이 바라는 언어 이전의 상태로의 귀환인 캐디와의 성관계는 그에게는 죽음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켄틴이 익사하는 것은 그가 대리모인 캐디와의 근친상간이

34)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Viking], p. 87.

35)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Viking], p. 173. 정인섭, 239-240쪽.

되며, 이는 곧 “무의식의 어두운 물속으로 자신을 침몰시키는 것”³⁶⁾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켈턴은 결국 강에 빠져 죽음으로써 그가 캐디와의 근친 상간을 대리적으로 실행하는 셈이 된다.

VII. 덜지, 또 다른 대리모

캐디가 벤지와 켈턴에게 대리모의 역할을 한다면, 덜지는 또 다른 하나의 대리모이다. 캐디는 이들에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대리모의 역할을 하는 데 비하여, 덜지는 일상의 생활을 통해 이들의 대리모 노릇을 한다. 이 소설에서 덜지가 흑인 하인으로서 이 같은 대리모의 역할을 하는 것은 포크너 자신이 어릴 때 그의 집에 살던 흑인 여자 하인 캐롤라인 (켈리) 바 (Caroline [Callie] Barr, 184?~1940)의 영향이 크다. 포크너와 그의 남동생들은 그녀를 “유모 켈리”라고 불렀다. 바는 포크너의 “제2의 어머니”이다.³⁷⁾ 그녀는 거의 100세가 다 된 1940년에 죽을 때까지 포크너의 집에서 살았다. 그녀가 죽자 포크너는 그녀를 기억하면서 그녀는 “품위의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많았으며, 애정과 존경, 그리고 안정(安定)의 근원이었다”³⁸⁾고 그의 추념사(追念辭)에서 말하고 있다. 포크너가 어렸을 때 그는 어머니의 보살핌보다는 바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바는 제2의 어머니이기보다는 오히려 제1의 어머니인 셈이다. 따라서 그가 그녀의 묘비에 써 넣은 다음과 같은 말은 그의 진정한 기원인 셈이다.

켈리 바 클라크, 1840~1940, 유모

그의 백인 아이들이 그녀에게 축복을 기원 하노라³⁹⁾

36) Fowler, “‘Little Sister Death,’” p. 12.

37) Fargnoli and Golay, *William Faulkner A to Z*, p. 14.

38) Fargnoli and Golay, *William Faulkner A to Z*, p. 14.

포크너는 1942년에 출간된 『모세여 내려가라』를 바에게 헌정(獻呈)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다.

매미에게 헌정합니다

미시시피

[1840~1940]

“매미”는 노예로 태어나

우리 가족에게 신뢰를

아낌없이 그리고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주었으며

내가 어렸을 때 끝없는

헌신과 사랑을 주었노라⁴⁰⁾

포크너가 기능 장애 가정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세계적인 소설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매미”의 이 같은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매미”는 이처럼 포크너에게 있어 어머니가 주지 못한 사랑을 대신 준 대리모인 셈이다.

콧슨 부인이 어머니 되기를 거부했다면, 달지는 콧슨 부인과는 달리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아이들을 희생적으로 돌보는 어머니 역할을 한다. 그것은 흑인 하녀로서의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녀가 콧슨가의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만 머물지 않고 캐디의 사생아인 미스 켄틴(Miss Quentin)을 양육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그녀의 모성애에 기인한다. 이 같은 그녀의 모성의 근원은 어디에 연원하는 것인가?

달지는 이제 오갈 데 없는 벤지를 돌보게 된다. 그녀는 벤지를 데리고 교회에 간다. 그녀는 교회에서 쉬이콧(Shegog) 목사의 다음과 같은 설교를 듣는다.

39) Fagnoli and Golay, *William Faulkner A to Z*, p. 14.

40) Fagnoli and Golay, *William Faulkner A to Z*, p. 14.

형제 여러분! 저기 앉아 있는 어린애들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한 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영광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때때로 밤에 천사들이 자장가를 부를 때, 예수를 안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창밖을 내다보고 로마의 경관이 지나가는 것을 봤을 겁니다. [중략]. 들으시오. 형제들이여! 나는 그 날을 눈앞에 선하게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무릎에 앉혀 문 앞에 앉아 계셨고, 예수님은 저기 앉아 있는 저 어린애들 같았습니다. 내게는 지금 천사들의 평화로운 노랫소리가, 그리고 하나의 영광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사르르 감고 계신 눈이 보이며, 마리아가 쫓기는 모습이 보이며, 병사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는 죽이려고 왔다! 우리는 죽이려고 왔다! 내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모르고 울며 탄식하는 불쌍한 마리아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⁴¹⁾

쉬이콕 목사의 이 설교는 바로 덜지가 보여주는 모성애의 모범이다. 덜지는 콰슨 부인과는 달리 마치 마리아가 예수를 진정한 어머니의 모성애로 키운 것처럼 콰슨가의 아이들을 마치 자기 자신의 자식이라도 되듯이 애뜻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역할에 대해 제이코버스(Jacobu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양의 상징체계에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은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비언어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언어 이전의 과정과 아주 근접하는 기호체계의 양태(樣態)를 제공하는 것이다.⁴²⁾

따라서 이 소설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진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인물은 덜지이다. 그녀가 비록 흑인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고귀한 어머니의 애정을 보여주는 것은 포크너 자신의 어렸을 적 경험에 토대한 것이다. 이는 또한 포크너가 인종과 피부색의 차이를 떠나 얼마나 어머니의 깊고 넓은 사랑에 목말라 했으며, 이러한 사랑의 필요성을 절감했는가를

41)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Viking], p. 342. 정인섭, 459-460쪽.

42) Mary Jacobus, "Dora and the Pregnant Madonna," *Reading Woman: Essays in Feminist Criticism* (New York: Columbia UP, 1986), p. 169.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VIII. 나가는 말

포크너의 많은 소설 중에서 『고함과 분노』는 그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이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포크너가 이 소설에서 보여준 높은 통찰에 기인한다. 이 소설은 좁게는 콧슨 가의 몰락의 원인을 추적한 작품이지만, 이 소설은 또한 남부 사회의 몰락의 원인을 보여주는 소설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는 포크너 자신의 가족사가 많은 부분 침윤돼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지 그의 상상력에만 기초한 소설이 아니라 그의 유년기의 경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와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작품이다. 그가 쓴 작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서슴없이 이 작품을 지적하면서 이 소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가장 비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장관으로 실패한 작품이지요. 그것은 『고함과 분노』이지요. 그 작품은 내가 제일 오래 걸쳐 쓴 작품이고, 가장 힘들게 쓴 작품이며, 내게는 제일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생각이 담긴 작품이며 가장 장관으로 실패한 작품이지요. 그 작품이 나오려는 가장 훌륭한 작품이지요—가장 훌륭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군요—그 소설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소설이지요.⁴³⁾

그가 이렇게 서슴지 않고 이 소설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으로 지적하는 이유는 그가 유년기에 경험하지 못한 언어 이전의 어머니와의 충만감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처럼 결핍된 유아기의 모성애의 충만감을 이 소설을 통해 표출함과 동시에 그 후 상징계에서 겪은 결핍을 되

43) Gwynn and Blotner, *Faulkner in the University*, p. 77.

살려내고자 한다. 라캉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상징계에 진입한다. 이 같은 상징계로의 진입은 유년기에 경험한 어머니와의 합일의 상실과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인간은 상징계에 진입함으로써 결핍의 존재가 되는 셈이다. 이 같은 결핍의 존재인 상징계에서의 인간은 어머니와의 충만을 상실하면서 그 대신 이의 흔적인 라캉이 말하는 <대상 소문자 a>(objet petit a)를 가슴에 품게 된다. 따라서 <대상 소문자 a>는 인간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언어 이전의 어머니와의 합일에 대한 꿈의 흔적인 셈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포크너에게는 이 같은 유년 시절의 어머니와의 충만의 경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충만의 경험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들에게는 흑인 유모인 켈리 바가 어머니 대신 대리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지 않고 살아남게 된 것이다. 이 소설에서 포크너는 흑인 유모인 바를 덜지라는 인물로 재창조한다. 그러나 그녀는 희생적인 모정을 아낌없이 그와 그의 형제들에게 주었음에도 신분의 차이 때문에 완전히 어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유모는 성적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크너는 자신이 갖지 못했던 여동생과 후에 죽게 되는 딸의 표상으로 캐디를 창조해 낸다. 캐디는 정신 장애인인 벤지에게는 심리적 대리모이며, 오빠인 켈틴에게는 근친상간적 욕망의 대상이 된다. 이리하여 캐디는 켈틴에게는 그가 어머니에게 느꼈음직한 근친상간적 욕망을 대신 느끼게 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캐디는 켈틴에게는 어머니를 치환하는 인물이다. 캐디에게 이 같은 근친상간적 욕망을 느끼고 있던 켈틴에게 캐디의 결혼은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켈틴은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게 된다. 이 같은 켈틴의 역사는 그가 캐디에 대해 가진 근친 상간적 욕망이 대리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는 직접적으로 캐디와 성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신 물에 빠져 죽은 셈이다. 정신 분석에서는 죽음과 성행위를 동일시하는데, 켈틴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원초적인 생명의 근원에로의 환원이 되기도 한다. 이는 또한

여성의 양수(羊水)에로의 회귀로도 해석되는데, 켄틴은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캐디와의 근친 상간적 욕망을 실현하는 셈이다.

그가 이 소설을 쓰고 난 후에 회열을 느꼈던 것은 그의 무의식에 존재 하던 이러한 결핍의 경험을 글쓰기를 통해 어느 정도 치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은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도 훌륭하지만, 포크너 자신에게는 글쓰기 치유로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소설에서 특히 유의할 것은 콧슨 가의 아이들의 대리모로서의 딜지의 역할이다. 딜지는 콧슨 부인이 다 하지 못한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여 대리모 역할을 한다. 그녀는 더 이상 돌볼 사람이 없게 된 벤지를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다니는 등 벤지를 자신의 자식 이상으로 돌본다. 딜지는 학식은 없지만 단순한 신앙을 기초로 하여 인생을 성실하게 희생정신으로 사는 모성애가 충만한 인물이다. 그녀는 쉬이콕 목사가 설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자신의 모범으로 삼아 인생의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고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이 소설에서 포크너는 딜지를 희생적인 대리모로 설정함으로써 인종과 피부색을 초월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이는 또한 포크너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묘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의 생각과 경험의 폭이 이 소설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다.

【Abstract】

Deficiency of Maternal Love as a Cause for the
Dysfunctional Family in *The Sound and the Fury*

Chong-Ho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Faulkner's *The Sound and the Fury* is considered to be an American classic. What sets this novel apart from other novels is its unique technique of narration. Especially its first three chapters are a repetition of the same narrative, recapitulating the story of Caddy recounted by her three brothers, Benjy, Quentin, and Jason. Why, then, we naturally ask, is this narrative to come into being?

To answer this question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how Faulkner felt about this novel. In an answer to a graduate student at Virginia University, Faulkner said very clearly that he loved Caddy very much and that even though her three brothers told the story of her three times, her story could not be finished. That is why he himself became a narrator to tell her story in the fourth chapter of the novel. He also told that after finishing the novel he felt peace and ecstasy.

We then ask why he felt peace and ecstasy after completing the fiction. We come to notice that the subtext of the novel is Faulkner's own childhood experience. Just as the novel is about the lack of motherly love for the Compson children, Faulkner was raised in a dysfunctional family where mother's love was sorely lacking. So we can assume that his biographical background has become the raw material for this novel, and in the process of writing this novel his pent-up longing for maternal affection has been eased. We therefore can conclude that his writing of this novel has been a self-help psychoanalytic cure for himself.

주제어 (Key Words)

정신분석(psychoanalysis), 프로이트(Freud), 라캉(Lacan), 대상 소문자 a (*objet petit a*), 희열(ecstasy), 반복(repetition)